

(일을) 벌리고 거두어 들이는 것은 그 순서를 잃지 않으며, 희노(喜怒哀)와 강유(剛柔)는 그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²⁰⁾

이 기사는 확실히 사계절이 경작 및 수확의 시간을 표시함을 알려준다. 농사는 반복되는 자연계의 규율에 순응하며 씨 뿌리고 거두는 것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사시와 농사활동의 순환적 성격이 동질적이라는 것을 확인시킨다. 그러나 정확한 계절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별자리나 기후 및 물후 등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별자리에 관심을 갖는 것은 시간이 기본적으로 지구의 자전, 달의 변화 등 천체활동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지만, 기온과 날씨 풍속 등 기후의 변동이나 동식물의 움직임으로 표시되는 물후의 변화도 계절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였음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거시적으로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면서도 1년을 좀 더 세분화한 단위로서 월령이나 절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월령을 기록한 문헌들에 별자리 및 물후를 포함하여 천자의 활동 세시제사(歲時祭祀) 등을 포함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월령은 정령(政令)의 형태로 농민들이 그 달에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등을 알리고 지도하고자 한 것으로, 고대사회 농업생산의 세밀한 계획표로서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예기』 「월령」이나 『여씨춘추』 12기 등을 참고한 고대 월별 농업생산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¹⁾ 맹춘(孟春)은 1년 농사활동의 시작으로 군주가 농사일을 선포하면 토지의 경계를 정돈하고 밭사이의 길을 바로잡으며 토지에 따라 적합한 오곡을 살핀다. 동시에 산림에서는 나무의 벌채를 금지하며 어린 짐

20) 『淮南鴻烈集解』 卷8, 本經訓 “四時者 春生夏長 秋收冬藏 取予有節 出入有時 開闢張歛 不失其叙 喜怒哀剛柔 不離其理”.

21) 이하 맹춘에서 계동까지의 활동에 관해서는 정하현 역, 『여씨춘추』, 소명출판, 2011과 孫希旦 撰, 『禮記集釋』, 中華書局, 1989를 참고하였다.

승이나 새끼를 뺀 날짐승을 죽이지 못하게 한다. 중춘(仲春)은 농작물의 생산초기로 잠깐 틈을 내어 문짝을 수선하며 칩전과 사당도 수리한다. 계춘(季春)은 살아 있는 것들이 다 나오고 싹트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농작물의 성장시기로 부녀자들에게 양잠을 독려하며 수말과 수소들이 암컷과 교접하게 한다. 맹하(孟夏)는 양잠이 끝나는 시기로 경작지와 둔덕을 둘러보고 농민들이 경작에 힘쓰도록 독려하며 짐승을 쫓아내서 오곡에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농민이 때를 잃지 않도록 한다. 중하(仲夏)는 곡식이 익기를 기원하는 시기로 임신한 암말을 무리에서 떼어 놓고 망아지는 고삐를 매어 길들인다. 계하(季夏)는 잡초들을 태운 뒤 물을 대어 토지를 비옥하게 하여 작물의 성장을 돕는다. 갈대를 베거나 풀을 모으고 옷감을 물들이는 때도 이 시기이다. 나무가 무성할 때이므로 산림에 들어가 누구도 벌채하지 못하게 한다. 맹추(孟秋)는 수확이 시작되는 달로 농민은 햇곡식을 바치며 부세(賦稅)를 내야 한다. 제방을 손질하여 홍수에 대비하며 궁실 담장을 고치고 성곽을 보수하는 시기도 바로 이때이다. 중추(仲秋)는 수확하고 저장하는 달로 한편 보리를 심고 채소를 갈무리하며, 움을 파고 곳간을 수리한다. 계추(季秋)는 농사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기로 수확이 끝나면 수확량을 장부로 보고하며 창고에 저장한다. 백공(百工)이나 농민은 휴식에 들어가지만, 천자는 사냥을 통해 군사훈련을 한다. 장작을 베어 숯을 만드는 시기이기도 하다. 맹동(孟冬)은 1년 농사활공을 마무리하며 내년의 농사활동을 예측하는 점을 치기도 한다. 관에서는 성곽을 높여 문을 단속하고 빗장을 수리하며 요새를 보수하고 관문과 교량을 점검한다. 농민은 휴식하지만 산림수택의 부세를 내는 시기이기도 하다. 중동(仲冬)은 산림수택에서 거친 먹을 거리를 구하기도 하고 금수를 사냥하기도 한다. 나무를 벌채하고 화살만들 대나무 등을 벨 수 있다. 계동(季冬)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지만, 농민들은 오곡의 종자를 선별하며 농기구를 수선하고 준비하여 다음 해의 농사에 대비

해야 한다.

이러한 월령의 농사활동 관련 내용은 후한대 『사민월령』(四民月令)에 이르러서는 더욱 세밀해진다. 각종 작물의 파종과 경작 수확을 다루는 농업생산 이외에도 양잠 방직 농산품의 저장 가공 매매 등등까지 포함하고 있어 매우 광범위하다.²²⁾ 구체적 내용을 보면 1월에는 농사활동을 준비하면서 2월까지 봄보리와 비두(蠶豆)를 심고, 2월에는 화(禾), 대두(大豆), 저마(苴麻), 호마(胡麻)를 심으며, 3월에 살구꽃이 피면 밭을 일구고 때맞춰 비가 내리면 메벼[강도, 稭稻] 및 화, 저마, 호두(胡豆), 호마를 심는다. 4월에는 누에를 기르며 화, 대소두, 호마를 심는다. 5월에도 호마를 심지만 화와 모마(牡麻)도 심는다. 6, 7월에 보리밭을 갈며 8월에는 밀과 보리를 심고, 9월에는 창고와 곳간을 수리한다. 10월에 곡물을 수확하고 11월에 대나무 등을 벌목하며 12월에는 소를 키우며 내년 농사를 준비한다. 이와 함께 농산품의 매매도 하는데 3월에는 딸감을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지만 5월부터 11월까지의 각종 생산물을 매매하기도 한다. 절기와 함께 구체적인 일(日)까지 명기된 경우도 있다. 예컨대 청명절에는 잠첩(蠶妾)에게 잠실을 수리하도록 한다든지, 8월 추분후 10일에 미전(美田)에 종자를 뿌린다고든지 등등이 그것이다.²³⁾ 농사의 시간이 일까지 세분화된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일보다는 월이 중시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데, 이런 가운데 절기에 대한 비중이 강화되고 있다. 사실 이전 월령에 등장하는 절기가 주로 황제나 관료의 활동을 다루고 있어 농민의 농업생산과 연계가 적었다면, 『사민월령』에서는 절기와 농사활동이 더욱 밀접해지고 있다. 절기가 갖는 농업생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24절기에 포함된 8절과 기후, 물후 및 풍기, 농시(農時)

22) 樊志民 朱宏斌, 『月令書與中國傳統農業管理思想之嬗變』, 『中國農史』 2002-3, p. 102.

23) 石聲漢, 『四民月令校注』, 中華書局, 1965 참조.

의 명칭들은 계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절기의 구분은 계절과 월이라는 시간단위를 더욱 세분화한 것이고, 농시의 예고나 농사의 표준제시라는 측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월령서들에서 절기명칭과 등장하는 많은 내용이 경작의 시작, 농로와 도랑의 수리, 농토의 정리, 파종, 수확 등 농사와 관련된 내용이 적지 않으며 절기는 직접적으로 농사활동의 표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²⁴⁾ 특히 고대 농서(農書)들에 동지나 하지를 기산일로 하여 특정한 농사활동을 예고하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도,²⁵⁾ 이러한 절기의 용도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24절기를 농사활동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다.

물론 『여씨춘추』 12기는 농사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제사, 전쟁, 구휼, 산림수택의 관리 등등 민간통치에 관련된 사항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관자』(管子) 유관(幼官)편의 30시절(時節)도 그 시행의 주체가 군주로 되어 있어 일반 농민들이 직접 생활상에서 실행할 시령은 아니다. 더구나 본래 2分2至(춘분 추분 하지 동지)의 성립은 지구의 공전활동에 따른 계절의 기준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본래 1회귀년을 균등하게 등분한다는 천문학적 관념을 포함한 역법(曆法) 본래의 수요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24절기의 성립을 농사활동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는데 비판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²⁶⁾ 24절기와 별도로 존재했던 은작산한간의 “30시”는 농사활동의 표준으로서 보다 오히려 점술적(占術的) 필요성이 강했다는 점은 이미 필자가 논증한 바 있다.²⁷⁾ 24절기와 30시절

24) 崔德卿, 「中國古代的 物候와 農時豫告」, 『中國史研究』 18, 2002. 5. pp. 19-32.

25) “冬至後五旬七日 于是始耕”(『呂氏春秋』土容論 任地); “夏至先後各二日 可種麥” “夏至先後各五日 可種牡麻”. “夏至後二十日前 可別稻及藍(以上『四民月令』五月) 특히 실용적 농사력의 성격을 갖는 『四民月令』은 24절기의 명칭과 함께 각종 농사활동이 배당되어 있다.

26) 馮時, 『中國天文考古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 pp. 256-257; 江曉原, 鈕衛星 著, 『中國天學史』, 上海人民出版社, 2005, pp. 122-123.

27) 卒考, 「節氣와 중국 고대인의 생활, 銀雀山漢簡의 “30時”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이라는 두 계통의 절기가 공존한 것은 기후와 물후의 지역적 차이일 수도 있고, 사용하던 역법의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다고 추정했지만, 30시절은 사계절에 균등하게 배합할 수 없는 부정합성의 요인 등으로 결국은 쇠퇴했던 것이다. 그러나 24절기와 마찬가지로 30시절을 농사와 완전히 부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30시절의 명칭 중에는 24절기에 들어있는 농사에 관한 명칭 예컨대 곡우(穀雨)와 망종(芒種)같은 용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에 해당되는 8개의 시절에는 “봄에 할 일을 경계하며(戒春事), 경작을 시작하며(出耕), 문호를 수리하고(修門閫), 금지해야 하는 행동을 발표하며(發禁), 남녀의 결혼(合男女)” 등의 행사를 하며, 여름의 7개 시절에는 “작과 상을 내리고(下爵賞), 거두어 들이며(收聚), 선행을 쌓음(盡善)”을, 가을의 8개 시절에는 “가을에 할 일을 경계하고(戒秋事), 거두어 들이며(收聚), 부세를 거두며(賦事), 남녀의 결혼(合男女)” 등을, 겨울의 7개 시절에는 “형벌을 다하며(盡刑), 사여(賜與), 거두어 들임(收聚) 크게 거둠(大收)” 등의 행사나 활동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⁸⁾ 이들 행사 중에 지기발(地氣發)의 계춘사(戒春事)나 소묘(小卯)의 출경(出耕)은 봄의 농경의 시작을 대비와 경작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므로 직접적으로 농경과 상관되며, 기풍지(期風至)의 활동인 계추사(戒秋事)도 추수를 준비하라는 의미이므로 농경의 일환임이 분명하다. 절기호칭 자체는 농시(農時)를 예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상 농경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관(幼官)을 현궁(玄宮) 즉 명당(明堂)이라고 해석하고 있듯이²⁹⁾ 이 내용들은 일반농민을 위한 농시의 예고는 아니며, 사여 수취 등과 같이 군주가 각 계절에 마땅히 행해야 할 일종의 정령인 것이다. 각

107집, 2008 참조.

28) 『管子』 卷3, 幼官, pp. 147-157.

29) 胡家聰, 『管子新探』,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p. 230; 金谷治, 『管子的研究—中國古代思想史的一面』, 岩波書店, 1987, p. 233.

계절이 갖는 구체적인 자연리듬과 규율을 정치와 일상생활 전반에 응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단순히 농사만의 표준을 제시하고자 한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월령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기에 맞지 않을 경우를 의미하는 불시(不時)를 강조하고 있지만, 유관편(幼官篇)에는 각각의 계절에 맞지 않는 정령을 시행할 경우 어떠한 재앙이 초래하는지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³⁰⁾ 사마담(司馬談)이 음양가를 설명하면서 “사계절, 팔괘의 위치, 12차, 24절기에는 각기 따라야 할 교령(敎令)이 있다”³¹⁾고 소개한 것도 절기가 갖는 이러한 시령적 지배의 한 성격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러한 점은 특히 각 절기에 실행하는 여러 행사들을 살펴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예컨대 24절기 중 후대까지 지속된 절일(節日)로서 정착된 동지를 살펴보자. 음기의 극성기로서 음양의 교대점에 해당되는 동지에는 해그림자를 측정하는 등 황제의 시간에 대한 지배권을 상징하는 원초적인 관행이 오래 지속되었고, 특히 동지전후 황제와 조정은 일체의 정무를 쉬고 휴식하면서³²⁾ 혹은 불을 바꾸거나 단옥(斷獄)을 끝내는 등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하였지만, 제천의식도 그 일환으로 실행되었다.³³⁾ 음양의 교대라는 측면에서 하지 역시 강조되었지만, 사계절의 시작으로서 입춘 역시 교외에서 영기행사를 행한다. 물론 민간에서도 10월부터 동지절을 위해 겨울술을 양조하기도 했고,³⁴⁾ 동지의 신인 현명(玄

30) 『管子』卷3, 幼官 “春行冬政肅 行秋政霜 行夏政闢”, “夏行春政風 行冬政落 重則雨雹 行秋政水”, “秋行夏政葉 行春政華 行冬政秬”, “冬行秋政霧 行夏政雷 行春政沍泄”

31) 『史記』卷130, 「太史公自序」中 六家要旨, “陰陽四時 八位 十二度 二十四節 各有敎令”.

32) 『後漢書』卷 15, 「禮儀志」中, “冬至前後 君子安身靜休 百官絕事 不聽政 擇吉辰而後省事”

33) 『周禮』卷6, 春官宗伯下 “冬日至 於地上之圜丘奏之 若樂六變 則天神皆降 可得而禮矣”

冥)과 조상을 제사지내는 등 매우 융중한 행사를 준비하였다. 하지 역시 정월부터 하지와 초복제사에 쓸 봄술을 양조하고 조상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은 동지와 매우 유사하였다.³⁵⁾

이렇게 볼 때 절기는 공동체의 결속감을 다지면서 일원적으로 국가의 지배를 확립하는 수단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여 통치기반을 확고히 하는 측면이 있었다. 반면 민간에서는 단조로운 일상생활 속에서 새로운 활력과 리듬을 갖는 시간이기도 했을 것이다. 월령이나 절기를 자연시간이나 농사시간 이외 문화적 시간으로 평가하면서 자연시간의 정치화를 통해 시간과 정치를 일체화시켰다고 본 것도³⁶⁾ 이 때문이다.

물론 일부 절기는 절일로 기능하면서 황제의 일원적 지배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기능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띤 형태로 등장했다. 초기 농사력으로서의 원초적 시령이 점차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항을 갖추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법령화되었던 것이다. 둔황현천치(敦煌懸泉置)에서 출토된 『사민월령조조』(四民月令詔條)는 월령이 현실정치에 응용되었던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맹춘에 벌목을 하지마라, 새 동지를 들어내지 마라” 등등 “……을 하지 마라”식의 금지조항이 태반이어서 적극적으로 시간에 맞추어 어떤 활동을 행하는 내용을 기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시령의 형해화 과정속에서 실제 얼마나 적용되었을 것인가 의문도 있다.³⁷⁾ 그러나 계절을 세분화한 월령과 절기의 활용은

34) 『四民月令』十月條, “上辛 命典饋瀆糶 麴澤 釀冬酒 必躬親潔敬 以供冬至 臘 正祖薦韭卵之祠”

35) 彭衛 楊振紅, 『中國風俗通史(秦漢卷)』, 上海文藝出版社, 2002, p. 635. 특히 『居延漢簡』에는 改火이외에도 병사활동의 정지, 우물물을 퍼서 새 물로의 교환, 鷄鳴때의 출입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甲編 91, 10.27).

36) 傅道彬, 『“月令”模式的時間意義與思想意義』, 『北方論叢』2009-3, p. 129.

37) 中國文物研究所 編, 『敦煌懸泉置月令詔條』(中華書局, 2001) 附錄 『敦煌懸泉置出土 “四民月令詔條”研究』.

자연적 시간과 인간의 정치적 시간을 조화 합치시키려는 고대제국 통치자들의 일련의 노력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하튼 농사활동에서는 사계절, 월령, 절기를 활용함으로써 문서행정에서 보이는 시간의 속도와 시간활용의 효율성보다는 자연법의 체현을 통한 자연시간과 생활의 조화를 보다 더 중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이다.

4. 제사 및 각종 의례시간

고대사회에서 제사와 의례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였다는 사실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제사는 황제의 경우 천지와 산천의 각종 신에 대한 다양한 제사뿐만 아니라 종묘제사 등 수많은 제사가 시행되었고, 제사의례 외의 즉위식이나 혼례 등 각종 의례 중에는 매년 정월 초하루 시작을 강조하는 원회의(元會禮)가 시행되는 등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갖는 행사들이 존재하였다. 제사의례를 살펴보면 우선 계절에 따른 제사와 연차에 의한 제사가 구분되어 있다. 교사제(郊祀祭) 등 계절에 따라 방위와 장소를 달리하여 제사를 지내야 하는 대상도 있었지만, 약사증상(禴祀烝嘗)이라 하여 각 계절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는 제사도 시행된 것을 보면 각종 신격에 대한 제사에서 계절이라는 시간적 요소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농사활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사와 의례에서도 계절은 활동의 이론적 기반이었다. 군자의 하루에도 사계절이 있다고 하면서 아침에는 정치에 참여하고 낮에는 방문하며 저녁에는 영(令)을 익히며 밤에는 몸을 편히 한다는 언급은³⁸⁾ 사계절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군자의 자기완성을 위한 일종의 주기단위로 인생 전체에 적용되는 생활과 의례의 기준이어야 함을 주장한 것이

38) 『春秋左氏傳』昭公 元年條 “君子有四時 朝以聽政 晝以訪問 夕以修令 夜以安身”

다. 사계절은 자연의 주기일 뿐만 아니라 생산의 주기이며 인생의 주기임을 환기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반고(班固)는 한문제(漢文帝)가 <사시무>(四時舞)를 창작한 목적도 천하의 안정과 화합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했던 것이다.³⁹⁾

그런데 제사의례에서의 계절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오행설, 천인상응설(天人相應說) 등의 사상과 결합하면서 공간과도 연계되었다. 계절과 연계된 동서남북과 중앙이라는 오방(五方)이 설정되면서 각종 계절 제사는 필연적으로 방위와 상관되었고 나아가 오행, 색깔, 신격, 음식, 악기, 물후 등과도 결부되면서 제사의례의 형식과 내용을 규제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매달 첫 번째 신일(辛日) 즉 상신일(上辛日)을 선택한다든지 하여 단위시간으로서의 일(日)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고, 하루 중의 시각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다. 다음 기사들을 살펴보자.

- ① 정월 하늘의 제사에 바치는 석생(夕牲)은 주루(晝漏)가 다하기 전 18각에 처음 바치고 야루(夜漏)가 다하기 전 8각에 처음 바친다. 명당(明堂), 오교(五郊), 종묘, 대사직(大社稷), 육종(六宗)의 석생은 모두 주루가 다하기 전 14각에 처음 바치고 야루가 다하기 전 7각에 처음 바친다(『後漢書』禮儀志).
- ② 황제가 종묘 제사에 가면 야반(夜半)에 들어가 예를 행하고 평명(平明)에 술 9잔을 올린다(『漢舊儀』卷下).
- ③ 22년 신묘일(辛卯日) 새벽[晨]에 태산 아래 남쪽에서 하늘에 요계를 지내고 …… 식시(食時)에 이르러 산에 오르기 시작하여 일중(日中)이 지난 뒤 산꼭대기에 다다라 옷을 갈아입고 조포(早晡)시에 단에서 즉위하였다(『後漢書』祭祀志).

39) 『漢書』卷 21, 禮樂志. “四時舞者, 孝文所作, 以(明)示天下之安和也”

- ④ 정월 상순의 신일(辛日)에 감천(甘泉)의 원구에서 태일(太一)을 제사지낼 때 70여 명의 동남동녀들이 황혼 때부터 날이 밝아올 때까지 일제히 합창하게 하였다. 밤늦게 항상 신명의 광채가 나오는 것이 유성이 제단의 위에 모이는 것 같았다(『漢書』禮樂志).
- ⑤ 맹추의 달에 천자는 동교(東郊)에서 봄을 맞이하고, 맹하의 달에 천자는 남교(南郊)에서 여름을 맞이한다. 맹추의 달에 천자는 서교(西郊)에서 가을을 맞이하고, 맹동의 달에 천자는 북교(北郊)에서 겨울을 맞이한다(『禮記』月令).

위 기사 중 ①과 ②는 각종 제사의례에서 월일뿐만 아니라 하루의 시각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세세하게 제사의 절차를 규정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으며,⁴⁰⁾ ③의 기사는 태산(泰山)에 오르는 주요 일정이 자세하게 시각으로 기록하였던 사실을 보여준다. 제사 자체가 일정한 시간표에 의해 통제되고 시행되었던 사정을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④는 신일(辛日)에 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하루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았어도 “황혼에서 날이 밝아올 때까지”라는 의미는 제사에서 음과 양이 교대되는 시간이 고려해야 할 의미 있는 시간임을 암시하고 있다. 제사활동이 시간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⑤는 오행설에 따라 오교에서 행하는 영기(迎氣) 행사를 말하고 있다. 사계절의 시작을 중시하여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대대적인 의례를 행하는 것이다. 이 역시 계절과 방위의 결합방식이 표현된 것이지만, 반복적으로 도래하는 계절의 주기성과 의식 및 춤 등을 통한 연출, 천과 인간의 소통을 주재하는 매개자로서의 왕의 상징성 등이 반영되어 있다.⁴¹⁾ 결국 오교영기의 목적은 계절에 순환에 따라 새롭게 시작되는 계절을 맞이한다는 의미가

40) 『後漢書』禮儀志에는 이런 종류의 기술이 적지 않다.

41) 張樹國, 「詩性時曆: “月令”與漢代祭祀詩關係探析」, 『杭州師範大學學報』2012-9, 2012, p. 73.

있어 시작점으로의 시간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연주하는 영기악(迎氣樂)으로 <청양>(靑陽), <주명>(朱明), <서호>(西顛), <현명>(玄明)의 4대악은 각기 4계절의 특징과 의미를 묘사한 것이다.

시간의 특정한 시점, 특히 시작점을 강조한 것은 제사의례 시간활용의 독특성을 잘 보여주는 측면인데, 오교의 교사의례(郊祀儀禮)도 그렇지만, 예컨대 일년의 시작을 강조했던 원회의례(元會儀禮)나 매일 초하루를 기념하는 곡삭례(告朔禮) 등도 이에 해당된다. “시”(時)라는 단어가 본래 “시”(始), 혹은 “시”(施) 등과 본래 발음이 같았고, 이것이 개시 혹은 발기(發起)를 의미하기 때문에 식물에서의 생명의 발아나 발동을 의미하는 상징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⁴²⁾ 시작점을 강조하는 의례는 시간의 원초적 성격을 잘 간파한 것임이 분명하다. 우선 원회의례는 일년의 시작이고 한 달의 시작이며 하루의 시작이라는 삼조(三朝)라는 의미를 갖는 원단(元旦)에 거행하는 국가의례이다. 한고조(漢高祖) 7년 10월 장락궁(長樂宮)이 완성되었을 때 거행된 원회의 예는 알자(謁者)가 날이 밝기 전에 이미 식장을 준비하고 의식참가자들 중 제후 공신 장군은 서쪽에 서서 동쪽을 바라보고, 승상 이하의 문관들은 동쪽에 서서 서쪽을 바라보면서 계단 양쪽에 도열한다. 황제가 도착하면 군신(群臣)들은 축하사를 바치고 황제를 향해 축배를 든다. 곧이어 의식은 향연으로 이어졌는데,⁴³⁾ 이것은 고대 원회의례의 기본적 진행이었다. 이러한 원회의례는 이후 더욱 정돈되었는데 다음 기사를 주목해 보자.

매 세수(歲首) 정월에 큰 조회를 열어 축하를 받는다. 그 의식은 다음과 같다. : 야루가 다하기 전 7각에 종이 울리면 축하를 받는다. 폐백을 드릴 때, 공과 후는 벽옥을, 중이천석(中二千石)과 이천석은

42) 詹冬華, 『中國古代三種基本的觀時方式; 切入古代時間意識的一個維度』, 『文史哲』 2008-1, p. 81.

43) 『漢書』 卷 43, 叔孫通傳.

어린 양을, 천석과 육백석은 기러기를, 사백석 이하는 꿩을 드린다. 백관은 정월에 조하(朝賀)한다. 2천석 이상은 전(殿)에 올라가 만세를 부른다. 어좌의 앞에서 잔을 높이 든다. 사공(司空)이 국을 올리고 대사농이 밥을 올리면 식거악(食舉樂)이 연주된다. 백관에게 하사품이 내리고 연회가 시작되면서 성대한 음악이 연주된다.⁴⁴⁾

원회의가 10월에 진행된 것은 이 달이 한고조가 진을 평정한 달이고, 곧 이 달을 한의 세수를 삼았음을 의미하므로 일년의 시작점을 강조한 것이 분명하다. 후한 이후의 원회의 때에는 만(蠻), 맥(獠), 호(胡), 강(羌) 등 주변 이민족도 조공했고 이들의 조공이 끝나면 군국(郡國)의 상계리(上計吏)들을 알현했다.⁴⁵⁾ 이러한 의식은 황제가 신하 및 지방, 주변국과의 종속관계를 재확인하고 권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⁴⁶⁾ 그런데 이 기사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야루미진7각”(夜漏未盡7刻)이라는 시간이다. 전술한 자료 ①에도 “주루미진18각”(晝漏未盡18刻) “야루미진8각”(夜漏未盡8刻) 등이 등장했지만, 물시계 누각(漏刻)의 시간계산법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한대 일반적으로 주야를 합하여 하루를 100각으로 했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 계절에 따른 주야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12혹은 16시간제의 시칭제와는 별도로 “주루 혹은 야루 상(하) 몇 각”이라는 형식의 구체적인 시간측정제도 병행했던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이 후에 96각제 혹은 108각제, 120각제 등으로 개정되었던 것은⁴⁷⁾ 12 혹은 16시제와 수리적으로 정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

44) 『後漢書』卷 5, 禮儀志 “每(月朔)歲首[正月], 爲大朝受賀. 其儀: 夜漏未盡七刻, 鍾鳴, 受賀. 及贊, 公·侯壁, 中二千石·二千石羔, 千石·六百石鴈, 四百石以下雉. 百官賀正月. 二千石以上上殿稱萬歲. 舉觴御坐前. 司空奉羹, 大司農奉飯, 奏食舉之樂. 百官受錫宴饗, 大作樂”.

45) 『後漢書』卷 5, 禮儀志 注引 蔡質『漢儀』.

46) 張瑜, 『試論漢代“元會儀”所體現的音樂政治論思想』, 『交響: 西安音樂學院學報』 27-4, 2008, pp. 88-90.

이다. 여하튼 이 100각제는 1년간의 주야의 변동을 각으로 반영한 것인데, 동지에는 낮시간이 40누각, 밤시간은 60누각이며, 동지부터 대략 9일 간격으로 낮과 밤에 각각 1각씩 변동이 생기면 하지에는 반대로 낮시간이 60누각, 밤시간이 40누각이 된다. 춘분과 추분은 당연히 낮과 밤시간이 각각 50누각이 된다. 이때 만약 정월의 낮시간을 대략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로 본다면(40누각) 교제에서 석생을 시작하는 시간인 ‘주루가 다하기 전 18각’은 거의 낮 1시 전후로 추정되며, 팽인(烹人)에게 희생을 건네는 시간인 ‘아루가 다하기 전 7각’은 대략 새벽 5시-5시반 경으로 추정된다. 이 시간에 초납(初納)을 드린다는 것은 야루에서 주루로 교체되는 즉 주야의 교체시간에 본 제사를 진행시킨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낮의 시작 혹은 밤의 시작을 강조한 것이다. 원희의를 상릉(上陵)의 예로 변경한 후한 명제(明帝) 영평(永平) 17년(74년)의 상릉례는 “주루상수”(晝漏上水) 즉 “주루에 물이 찰 때”의 시간에 “대홍려가 구빈(九賓)의 자리를 배정하고 순서대로 백관들을 침전(寢殿) 앞에 세우게 되는데”⁴⁸⁾ 이 기사에 언급된 “주루상수”는 대체로 일출시기로 새벽 6시가 다소 넘는 시간으로 알려져 있다.⁴⁹⁾ 바야흐로 낮이 시작되는 시점인 것이다.

한편 곡삭례(告朔禮)는 서주시기 한 달의 시작점인 매월 첫 날에 제후들이 천하에게서 받은 달력을 꺼내어 조묘(祖廟)에서 제사를 지내고 의식을 치르는 것으로 이후 삭정(朔政)을 행한다는 의미가 있다. 쟁점은 하안(何晏)이 주에 명기한 “조향”(朝享)이 곡삭(告朔) 시삭(視朔)이후 별도로 드리는 월제(月祭)인지, 곡삭의 일부분으로 그 의식 중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인데,⁵⁰⁾ 일단 이 문제는 차치한다면 노문공(魯文公)이 이

47) 陳久金, 『中國古代時制研究及其換算』, 『自然科學史研究』 2-2, 1983, p. 123.; 傅振倫, 『漢代計時方法』, 『文物春秋』 1990. 4, p. 36.

48) 『後漢書』 卷 4 『禮儀志』 禮儀上.

49) 李欣, 『東漢“上陵之禮”考述』, 『咸陽師範學院學報』 2012-9, p. 16.

50) 田家溧, 『告朔禮考』, 『華北水利水電學院學報』, 27-2, 2011.

예를 폐한 이후 진한시대에는 이 의례는 일시 단절된 것이 분명하지만, 시간의 시작점을 강조하는 시령을 통해 피지배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시간의 주재자로서의 천자의 권위를 강조하려는 곡식의 의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더불어 제사에서 상신일(上辛日) 같은 특정 일자를 강조하는 점도 시간관념의 이해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한 대 이래 정일(丁日)과 기일(己日)도 때로 사용하였지만 앞서 인용한 사료 ③과 ④처럼 신일(辛日)을 사용한 용례가 가장 많다.⁵¹⁾ 여기에서 상일(上日)을 초하루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⁵²⁾ 여기에서는 상순의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 상신일은 첫 번째 신일이 되는 것이다. 감천 태일제사를 정월 상신일에 지냈지만, 교사제(郊祀祭)에서도 12월 하신일(下辛日)에 점을 치고 정월 상신일에 제사지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⁵³⁾ 정월이 세수를 의미하고 신일은 재계(齋戒)와 자신(自新)의 의미를 갖는다는⁵⁴⁾ 점이 강조된 것이다. 특히 한 무제가 상신일에 상고이래의 제천활동을 계승한 이래로 진(晉) 태시(泰始) 2년(266년)에 곡식의 풍숙(豐熟)을 기원하는 원일기곡(元日祈穀)도 교제(郊制)에 포함시켜 정월 상신일에 거행하게 되면서 그 의미는 더욱 강화되었다.

한편 상장의례 같은 경우는 발생시점이라는 특별한 시간이 선택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실행기간의 장기성은 지속시간의 관념을 갖는다는 점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거상기간 즉 복(服)을 입는 기간 등이 신분에 따른 차등성은 중국 고대 의례시간관념의 중요한 한 특징이었다.

51) 『南齊書』禮志上 “漢魏以來 或丁或己 而用辛常多 考之典據 辛日爲允”.

52) 『史記』五帝本紀 『集解』引 馬融云 “上日 朔日也”.

53) 『春秋穀梁傳』 “十二月下辛卜, 正月上辛郊”; 『禮記』 「郊特牲」 “郊用辛 周之始郊日以至”.

54) 『禮記』 「郊特牲」 注 “正月 歲首, 上辛猶始新 皆取其首月之辛日者”.

5. 의학에서의 시간

의학에서의 시간활용은 질병 및 그 치료방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질병은 기(氣)의 소장관계(消長關係)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차도가 있고, 치료도 그러한 차도를 고려해야 하므로 시간의 요소가 의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서 하루의 시간을 오행이나 팔괘 배당에 따른 분류하는 시간의 5분류법 및 8분류법이 유행할 수밖에 없었다. 공적인 시제로서의 12 혹은 16시간제는 이 분야에서 그다지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지는 않다. 주지하다시피 약의 복용이나 침 치료에서 가장 중시되었던 사항은 역시 시간이었다. 현실적으로 주야의 교체, 계절의 변화 등이 인체의 생리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거의 상식에 가깝기 때문에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시간을 고려한다는 사실 자체는 별반 새로운 것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方士들에게 시간과 질병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였고, 그들이 주목한 것은 우선 하루 중의 시간이었다. 인체 내의 양기의 활동이 주야와 아침저녁으로 달라진다고 생각했던 방사적 경향의 의자(醫者)들에게 병의 상태도 1일의 시간의 변화에 따라 차등이 있다고 인식했다.

아침에는 사람의 기가 비로소 생기기 시작하므로 병기는 쇠약해져 혜(慧)라 부르고, 한낮에는 사람의 기가 생겨 장시간 사기(邪氣)를 이기고 있으므로 안(安)이라고 한다. 저녁에는 사람의 기가 쇠하고 사기는 생기기 시작하므로 가(加)라고 한다. 한밤에는 사람의 기가 오장에 들어가고 사기만 몸에 남으므로 심(甚)이라고 한다.⁵⁵⁾

55) 『黃帝內經靈樞』下冊(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95) 卷 7, 順氣一日分爲四時, p. 25.